

육계 · 종계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본고는 지난 3월 12일 축산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충북양계협동조합 및 본회에서 각각 주관, 후원한 충북소재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21세기를 향한 육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최성갑 도원농장 대표가 발표한 “육계 · 종계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을 발췌 · 게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우 리나라의 육계 및 종계산업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 자동화시설의 본격적인 설치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하에서도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 즉 발전에 저해를 주는 문제들을 20여년간 몸담아오면서 느낀대로 발표할까 한다.

1. 사육환경 및 사육기술 미비

우리나라에서 육계사육하는 분들은 거의가 보온덮개 계사에서 닭을 키우고 있으며 지금은 정식건물로 스투트 내지는 갈바룸 계사로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80% 정도는 하우스계사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1990년 초부터 사육환경을 좋게하기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시설자금을 농가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계사가 정식건물로 변하였으며 시설의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과연 얼마나 닭을 키르기에 좋은 환경으로 건축되었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외국에서 본대로, 또는 남이 하는대로 보고 듣고 지어진 것이 태반일 것이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도 생산성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등 제반 요건을 고려치 않은데 있다고 하겠다. 결국 기술적인 지원은 없이 자금만 지원한 결과인 것이다.

사육기술 또한 각자 개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그전부터 해 오던데

대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대로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판단도 없이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일례로 대포라고 불리는 열풍기로 육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육계사육의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또한 백신의 방법도 수의사 내지는 동물약품의 영업사원이 시키는대로 가져다 주는데로 백신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시설 및 사육의 면에서 뚜렷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기관 내지는 전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육계산업의 큰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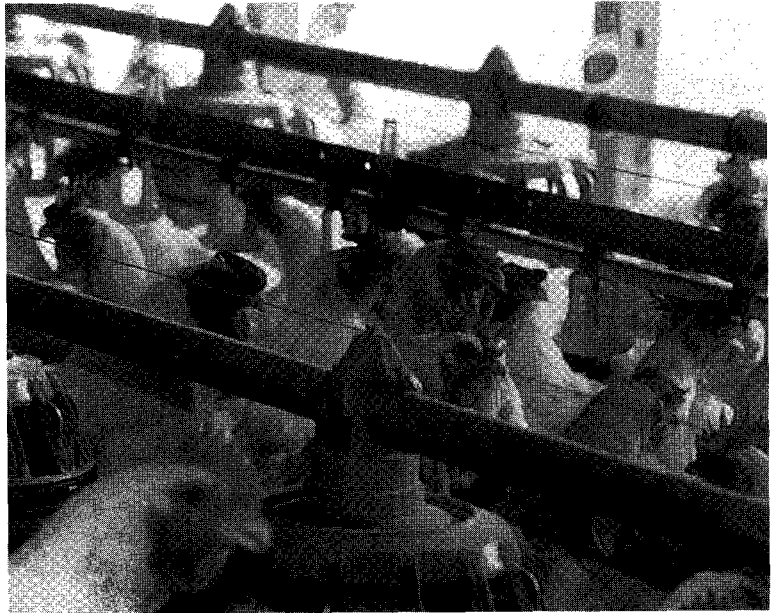
수입닭고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사육시설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사육기술을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2.5kg의 닭고기를 생산하는바 우리도 이러한 수준을 따라가야만 수입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부 육계농가에서 무창계사를 신속하여 평당 70수의 병아리를 입식,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육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앞으로 양계협회나 가금학회 또는 정부에서 과연 육계를 사육하는 사람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정보내지는 재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2. 유통 구조의 모순

육계는 생물이니 출하시기가 넘어가면 그 후의 비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가격이 비쌀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생산가 이하의 가격일 때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된다.

그러므로 현 유통구조로는 소개상에게 계속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른 농가의 손실은 막대하다 하겠다.

이중가격을 형성하여 농가를 울리는 현유통구조는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통체제가 지속되는 한 육계산업의 발전은 더욱 느려질 것이다.

3. 육계 및 종계인들의 결집력 부족

육계 및 종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의 일만을 잘할뿐 육계 및 종계업의 전체 이익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는 육계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산업을 위하여 다같이 참여하는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육계산업을 투기사업화 하는 것도 모든 육계인의 결집력 부족일 것이다.

다같이 단결하여 우리들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정부자금도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필요한 기술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지 아니한다면 물밑 듯 밀려오는 수입 닭고기에 우리의 시장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언제까지나 정부를 바라보고 양계협회를 또는 관계기관을 바라보는 수동적 자세를 가질 것인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부도, 협회도 움직이게 만들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백세미의 남발

축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종자가 없는 한 발전은 없을 것이다.

우수한 종자란 양축가에게 이익을 주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품종이 우수한 종자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을 외국에서 원종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종계를 등록시키고 검정을 받고 추백리

검사를 하여 병아리를 생산하여 육계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육계농가의 손실을 막고, 더 나가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의 공급을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대형 도계업체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검증도 받을 수 없는 산란용 실용계에 육용종계 수탉의 정액을 채취, 인공수정하므로써 일명 백세미를 생산하여 삼계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그들이 편리한대로 육계시장을 잠식하여 육계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백세미의 피해는 우선 질병전파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영세한 산란계 농장에서 백세미를 생산함으로써 살모넬라의 일종인 가금티푸스에 오염될지도 모르는 채 백세미를 생산함으로써 그것을 기르는 농가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기를 수 없는 상태로 백세미를 생산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항생제로 길러진 닭고기가 안전한 축산물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백세미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삼계탕의 맛이 백세미만이 좋은 맛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것은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이다.

1980년초에는 육계실용계로 삼계탕을 생산하였으며 맛도 좋았다. 지금도 육계실용계로 생산하고 있는 곳도 있다. 삼계탕은 우리나라에서 토종닭으로 생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계탕은 옛날부터 백세미로 생산한양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백세미의 생산은 국가적으로 사료의 낭비를

초래한다.

사료요구율이 높음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법을 지키며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일반 종계업자들의 노력에 허탈감을 줄 뿐이다.

백세미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산란계 실용계에서 백세미를 생산한다면 육계산업의 발전은 멀어질 뿐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백세미의 생산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또한 불법 CD의 유통을 단속하듯이 백세미의 생산, 사육,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여야 육계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5. 종계의 강제환우 및 병아리의 품질

대부분의 종계장에서 종계를 강제환우시켜 사용하고 있다. 종계를 강제환우하여 병아리를 생산할 경우 병아리의 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종계의 강제환우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환우는 육용 병아리의 통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정확한 초생추 생산에 대한 통계가 어려워져서 육계산업에 저해될 뿐이다. 병아리의 품질은 각 종계장, 부화장에 따라 다양각색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육계농가에서는 무조건 병아리를 구입하지 마시고 단결하여 어느 부화장의 병아리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문을 내서라도 그 병아리의 구입을 막는 방법만이 병아리의 품질이 좋아지고 육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이

될 것이다.

6. 정부정책의 문제

정부에서 육계 및 종계업에 대한 정책 수립시에 육계 및 종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고 정책을 수립하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수립된 정책은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뿐이다.

일예로 ND백신의 의무화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백신후의 수송 스트레스에 대한 거부감으로 육계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IB백신과 혼합사용하기 위하여 ND백신만의 스프레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육계농가에서 원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로 본다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는 실지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수립된다면 육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보았다.

육계 및 종계업의 발전은 육계 및 종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발전할 것이다.

또한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표도 경제적 이익일 것이다.

위에 열거한 문제가 원만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육계 및 종계산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양계**